

과학기술부 장관에 徐廷旭박사 임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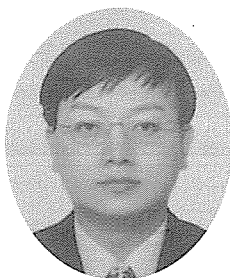
▲ 徐廷旭 장관

金大中 대통령은 3월 23일 사의를 표명한 姜昌熙 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徐廷旭 초당대 총장을 임명했다.

신임 徐廷旭 과학기술부 장관(65세)은 서울대 전기공학과, 미국 Texas A&M대학(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)을 졸업한 후 공사 교수, 국방과학연구소장, 대한전자공학회장, 과학기술처 차관, 한국과학기술원(KIST) 원장, SK텔레콤 부회장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2월부터 초당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해 왔다.

'이달의 과학기술자상' '99. 3월 시상식 개최

과학기술부, 한국과학재단



▲ 李承豪 팀장

學·研·産의 연구개발 인력 중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발굴·포상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재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'이달의 과학기술자상' 99년 3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3월 26일 姜昌熙 과학기술부장관, 金永烈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, 朴辰好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 등 관련인사들과 수상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 개최됐다.

이날 시상식에서 姜장관은 '그룹웨어 핸디오피스 개발'의 업적으로 3월 수상자로 선정된 핸디오피스(주) 李承豪팀장(35세)의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장과 부상 및 기념패를 수여하였다. 수상자가 개발한 핸디오피스

는 94년 4월 전자메일/결재시스템부문과 96년 11월 그룹웨어 서버기술분야에서 동종 제품군으로는 2회 연속 국산 신기술 인정마크를 획득함으로써 기술적 우수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, 지난 96년 말 일본의 YIS(야마이찌 정보시스템사)에서 분석한 세계 7대 그룹웨어 제품 비교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 국산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.

새 회관 마련, 2월 22일 축하행사 가져

재일과협



▲ 재일과협 회관

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(회장 고기수)는 새로운 과협회관을 구입하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지난 2월 22일 가졌다.

동경시 내 미나모토구 하마마쓰초에 지상5층 총면적 405.76㎡규모의 회관을 마련한 재일과협은 앞으로 이 회관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위해 유익하게 쓰이도록 운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. 지난 83년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친목도모 및 고국과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된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현재 2천2백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. ①7